



9일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KIA 이흥구가 스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또 홈런... 박병호 “감 잡았어”

MLB 시범경기 토론토전 솔로포...에인절스 최지만 투런포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샬럿의 미프로야구(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거포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1회초 2사 만루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방망이는 아직 ‘겨울잠’

LG와 시범경기 첫 대결서 0-3 패...최원준 유일한 안타

김현준·서덕원 등 신인 호투...마무리 후보 심동섭 1실점

1안타로 끝난 ‘호랑이 군단’의 첫 경기였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 첫 대결에서 0-3, 영봉패를 기록했다. 이날 출루한 KIA 타자는 단 4명, 2루까지 밟은 선수는 고졸 신인 최원준이 유일했다. 27개의 아웃카운트가 채워질 동안 기록된 안타도 하나였다. 이 역시 최원준의 기록이다. 1회말 1사에서 최원준이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텍사스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3

번 윤정우가 2루수 플라이로 몰러난 뒤, 나지완의 타석 때 최원준이 2루로 향하며 도루에 성공했다. 나지완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2사 1·2루가 됐지만 이흥구의 3루 땅볼로 득점 없이 공격이 끝났다. 1회 이후에는 이렇다할 공격도 없었다. 5회 김민우의 볼넷, 6회 김주형의 몸에 맞는 볼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타였다. 침묵의 공격과 함께 수비 실수도 이어지면서 면목없는 타자들이 됐다. 이날 공식적으로 기록된 실책은 2개, 유격수 윤완주

와 투수 서덕원의 송구 실책이 나왔지만 매끄럽지 못했던 중계 플레이와 불안한 송구 등 공·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마운드로 위안을 삼은 경기였다. 뒷심이 부족했지만 ‘막내 예비역’ 김윤동이 첫 선발 테스트에서 묵직한 힘을 보여줬다. 김윤동의 기록은 3.2이닝 5피안타 4사사구 5탈삼진 2실점.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힘있는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 커브, 포크, 투심 등을 구사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1741일 만에 팬들 앞에 다시 선 광정철도 4회 2사 만루의 위기를 공 하나로 막아내는 등 1.1이닝 1볼넷 2탈삼진으로 감격스러운 복귀전을 치렀다. 대만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대

졸 신인 서덕원과 고졸 신인 김현준도 씩씩한 피칭으로 3이닝을 책임졌다. 사이드업 서덕원은 6회를 1볼넷 1탈삼진으로 막았고, 김현준은 8회 볼넷에 이어 도루까지 허용하며 1사 2루에 몰렸지만 유격수 앞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9회도 탈삼진 하나 포함 삼자범퇴로 막았다. 7회 마운드에 오른 ‘마무리 후보’ 심동섭은 첫 등판에서 1피안타 2볼넷 1실점의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KIA는 10일 임준혁을 선발로 해 SK와 시범경기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한다. 한편 KIA의 시범경기 첫 경기가 진행된 9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085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운드는 달다” 광정철 1741일 만에 컴백

2011년 6월 이후 팔꿈치·무릎 수술 ‘힘겨운 재할’

1.1이닝 1볼넷 2탈삼진...“제구에 신경쓰겠다”

“1군 마운드는 달다.” 5년 만에 팬들 앞에 다시 선 KIA 타이거즈 투수 광정철에게는 풀 같은 시간이었다. 광정철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김윤동에 이어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 1.1이닝을 소화했다. 긴장되는 첫 등판 성적은 1.1이닝 1볼넷 2탈삼진. 0-2로 뒤진 4회초 2사 만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광정철은 공 하나로 볼을 쫓았다. 광정철은 이전웅과의 승부에서 초구에 포수 파울프라이를 잡아내며 이닝을 종료했다. 5회 다시 마운드에 오른 광정철은 4번 서상우와 5번 채은성을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김용의에게 볼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1루수 앞 땅볼 때 직접 베이스 커베에 들어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찍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 슬라이더는 130km를 기록했다. 직구(16개)와 슬라이더(6개) 만으로 4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1군 마운드는 달다”고 운을 뗀 광정철은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그동안 재할의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오늘 시간을 정말 기다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정철에게는 1741일 만에 팬들 앞에 선 시간이다. 2011년 6월3일 SK 원정경

기를 끝으로 광정철은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우측 팔꿈치 췌장 제거 수술, 우측 팔꿈치 연골 정리, 왼쪽 무릎 수술 등 잇따른 수술과 재할의 시간을 견디며 어렵게 맞은 오늘이다. 광정철은 “2군에 있는 동안 전력분석팀에서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 동영상 보여주고,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주게 큰 도움이 됐다. 마운드에서 내가 훈련했던 대로만 던지자고 생각했다. 1군 마운드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포수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공이 들어가 지 않았다. 앞으로 제구에 신경쓰겠다”고 언급했다. 광정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오늘을 맞은 이들도 있다. 겨우내 힘을 키운 ‘야기 호랑이’ 5인방이 공식적으로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내야수 최원준이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에 이날 경기의 유일한 안타를 기록했다. 최원준은 1회 1사에서 좌익수 앞에 푹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베이스까지 홈치면서 KIA에서 유일하게 2루 베이스를 밟았다. 대졸 신인인 사이드업 서덕원은 6회 등판, 1볼넷 1탈삼진의 피칭으로 눈길을 끌었다. 8·9회에는 평균 나이 18.5세의 ‘꼬마 배터리’가 등장했다. 광주일고 출신의



9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KBO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와 LG의 경기에서 KIA 광정철이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투수 김현준과 동성고 출신의 포수 신병수가 배터리로 프로에서의 첫 경기를 소화했다. 대만 캠프에서 투수 MVP에 등극한 김현준은 친구 신병수와 2이닝 1볼넷 2탈삼진을 합작하며 루키의 패기를 보

여줬다. 벤치를 지키던 마지막 신인 이진영도 9회초 수비에서 김호령을 대신해 중견수 자리에 들어가면서 프로 무대에서 스타트를 끊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홈런왕 출신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2호 홈런을 터뜨렸다. 박병호는 9일 미국 플로리다주 오토익스체인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범경기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박병호는 0-5로 뒤진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토론토 선발 가빈 플로이드를 상대로 솔로아치를 그렸다. 앞서 박병호는 지난 7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만루홈런을 폭발시켰다. 그는 하루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전한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 행진을 이어갔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거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박병호의 시범경기 성적은 13타수 3안타(타율 0.231), 홈런 2개, 6타점, 4득점이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첫 시범경기였던 지난 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삼진만 3개를 당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튿날 레드삭스와의 두 번째 시범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박병호는 6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2타수 무안타 1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7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만루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이날 솔로아치를 그리며 KBO리그 홈런왕의 참모습을 과시했다. 한편, 미네소타는 토론토에 3-9로 패했다. 박병호와 함께 미네소타의 거포로 주목받는 미겔 사노는 7회초 2점포를 터뜨렸다. 최지만(25·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도 손맛을 봤다. 최지만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범경기에서 9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3으로 팽팽하게 맞선 6회초 2사 3루에서 역전 투런포를 터뜨렸다. 최지만은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애리조나의 4번째 투수 조시 콜멘타의 바깥쪽 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84마일(약 135km)짜리 커터를 결대로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겼다. 최지만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첫 홈런이다. 롯데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최지만은 개막 25일 로스터 진입이 유력하지만, 1루 주전 알버트 푸홀스가 돌아오기 전까지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연합뉴스



심석희·최민정 ‘금빛 질주’ 시작된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내일 목동서 개막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왼쪽)-최민정(서현고·오른쪽)이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금빛 질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리는 2016 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대회에 나선다. 총 34개국에서 150명의 선수가 나서 2014년 이 대회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심석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서현고)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총 8개(개인전 4개·계주 4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며 ‘쇼트트랙 여왕’의 위용을 과시했다. 다만 지난 1월 말 왼쪽 발뒤꿈치 봉와직염으로 월드컵 시리즈 5, 6차 대회에 빠진 심석희는 정상 훈련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 회복이 변수다. /연합뉴스

최근 남자 대표팀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에서도 여자 대표팀의 선전이 기대된다. 최민정의 2연패 도전도 주목된다. 최민정은 지난해 3월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숨에 우승을 차지하며 간판선수로 도약했다. 올해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총 1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회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심석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서현고)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총 8개(개인전 4개·계주 4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며 ‘쇼트트랙 여왕’의 위용을 과시했다. 다만 지난 1월 말 왼쪽 발뒤꿈치 봉와직염으로 월드컵 시리즈 5, 6차 대회에 빠진 심석희는 정상 훈련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 회복이 변수다. /연합뉴스